

호남권 최대 산업전 ‘광주미래산업엑스포’ 개막

AI융합 모빌리티 등 신기술 전시
270개사 참여 570개 부스 운영
수출상담회서 판로 개척 등 지원
강 시장 “미래모빌리티 도시 육성”

호남권 최대 산업전시회인 ‘2025 광주 미래산업엑스포’가 25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식을 갖고 나흘간 여정에 들어갔다.

이번 엑스포는 국내외 270여개 기업이 참여해 총 570개 부스를 운영하며 미래산업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번 엑스포는 광주가 공들여 육성해온 미래모빌리티, 가전·로봇, 드론·뿌리산업 등 최첨단 미래산업의 성과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라며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융합 미래모빌리티 혁명시대 흐름에 맞춰 광주를 대한민국 대표 미래모빌리티 도시로 육성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엑스포는 ‘AI융합 모빌리티 기술테크(Tech) 전시회’로 구성돼 혁신기업들의 신제품과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지역



호남권 최대 산업전인 ‘2025광주미래산업엑스포’가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시민 등이 현대자동차그룹 테크관 등 주요전시품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김양배 기자

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개막행사에 이어 참석자들은 전시장에 마련된 주요 기업의 전시 부스를 둘러보

며 첨단기술을 체험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가 참여한 기술테크관에서는 차세대 소프트웨어 중심공장(SDF) 구축의 핵심 요소인 AMR·MPR(물류 모빌리티 로

봇) 기술과 수요자 맞춤형 차량(PV5) 및 수직이착륙 UAM(미래항공모빌리티) 모형기 등이 전시돼 큰 관심을 끌었다.

전시 기간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수출상담회가 함께 열려 지역 우수 참가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시민들을 위한 체험 콘텐츠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자율주행차 시승, 드론축구, 3D프린팅 체험, 로봇 요리 시연, EV차량 전시 등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운영된다.

이밖에 ‘광주방문의 해’ 홍보부스 운영, 기업 부스 경품 이벤트, 굿즈 할인행사 등 일반 시민도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부대행사로 26일에는 청년·중장년·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박람회인 ‘2025 광주 함께 JOB 페스타’가 열리며, 28일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로봇경진대회와 과학 인플루언서 허성범 씨의 AI 특별강연이 예정돼 있다.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일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개막일인 25일에는 야간 운영으로 밤 8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전남도, 화학·물류 기업 대상 투자유치 박차

신규 부지·인센티브 소개 호응

전라남도는 25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석유화학·물류 분야 기업, 유관 기관, 산단 시행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어, 입주 가능 부지와 인센티브를 소개하며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했다.

설명회에서 새정부 산업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산업위기 극복에 나서는 석유화학 기업이 신산업 진출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의 신규 산업용지를 소개해 큰 관심을 받았다.

신규 산업용지는 울촌 융복합물류단지, 묘도 항만재개발지구, 여수국가산단 확장단지, 3개소다.

울촌 융복합물류단지는 약 100만 평 면적에 석유화학 등 부두를 설치할 예정으로 수출입에 강점이 있다. 입주 대상은 석유화학 업종과 물류 관련 업종이다.

묘도 항만재개발지구는 약 94만 평 중 20만여 평에 LNG탱크와 부두 등 관련 시설이 건축 중으로, 연관 산업 입주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여수국가산단 확장단지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 확장단지다. 이미 구축된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고 기존 공장으로부터의 거리가 짧아 연계가 가능한 점 등 단지별로 특색이 있어 참가 기업으로부터 관심을 모았다.

전남도는 이같은 기업의 관심이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지도록 투자유치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1대 1 컨설팅 등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전남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위기상황에서도 기업이 신산업 진출 등 활로를 모색하도록 선제적 산업용지 공급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과잉생산 전복 생산비 구조 체질 개선”

연구원·양식 어업인과 연구 분석 생산원가 항목 체계화 등 전략 마련

전라남도는 과잉 생산과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운 전복 양식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생산비 구조 분석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남도에서 전남연구원, 전복 양식 어업인과 함께 진행한다. 전복 양식업의 원가 구조를 체계화하고 양식 규모와 지역에 따라 세분화한 생산단가를

산출해 생산 효율성과 경영 안정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양식 규모별 생산비 구조(100칸 이하·100~200칸·300칸 이상) △전복 가두리 등 시설투자비, 인건비, 유통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한 생산 원가 분석 △판매 미수별·양성 기간별 원가 산출 등이다.

또한 기존 마리수별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원가를 반영한 새로운 판매모형을 제시해 전복 판매 가격 표준화 모델을 마련하고, 출하 시점 최적화로 어가의 수

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그 결과를 토대로 전복 양식업의 운영 실태를 진단, 구조 개선 방안과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어업인에게도 현실적 생산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전복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시장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내실 있는 연구 추진을 위해 최근 시군별 전복 양식어업인 좌담회를 열어 현장 어업인 의견을 수렴, 연구 방향에 반영키로 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외국인투자 400만 달러 유치 성공

스마트 유리설비제조 투자협약 세계 1위 ‘라이섹’ 광주에 투자 AI 기반 인프라 강점… 11월 가동

광주광역시와 총 400만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성공했다.

광주시는 2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내 단열 및 특수유리 가공설비 제조기업 ㈜아이지스, 오스트리아 유리 가공설비 전문기업 라이섹(LiSEC GmbH)과 ‘3자 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시가 미래형 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온 성과로, ㈜아이지스는 광주 첨단산업단지에 스마트팩토리 기반 차세대 유리 가공설비제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

다. 총 투자 규모는 400만달러(한화 약 40억원)이며, 신규 고용 인원은 10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남진 아이지스 대표이사와 안나 탄엘리(Anna Tanyeli)·김새봄 라이섹코리아(LiSEC KOREA)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해당 제조시설은 오는 7월 착공해 11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들 회사는 광주시를 투자지로 선택한 이유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제조 생태계 △우수한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인프라) △산업단지와의 연계된 기술 지원 체계 등을 꼽았다.

광주는 국가AI(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연구지원 플랫폼 등 첨단 제조회경을

바탕으로, 첨단3지구와 빛그린산단 등 전략산업 거점을 연계해 스마트제조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투자에 대해 △투자 실행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생산기반기술 인프라 안내 △조세 감면 및 보조금 등 각종 특전(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또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과 함께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을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합작 투자로 광주가 스마트제조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미래산업 도시로서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광주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홍보 캠페인

광주광역시는 태풍과 폭우가 집중되는 장마철을 앞두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풍수해·지진재해보험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3일 양동시장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송정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등을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호우,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 시 △사전 대비방법 △대피 요령 △위험시설 피하기 등 국민행동요령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재난·재해 예방의 근본인 시민 스스로의 안전의식 함양의 중

요성도 강조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도 권장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 농업·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고,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소유주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며 가까운 보험사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재난 대응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시민들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행동요령 홍보와 정보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

정상아 기자

전남농기원, 국제농업박람회서 아열대채소 전시장 운영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에 기후변화 시대 유망작물로 주목받는 ‘아열대채소 전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업환

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의 신소득 작목 발굴과 기능성 채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장은 박람회장 내 전남도 전시관 일원에 조성되며, 관람객과 농업인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주요 전시 작물은 뽕오이, 여주, 땅콩호박, 공심채, 차요태 등 건강 기능성이 뛰어난 아열대채소다. 이들 작물은 항산화 성분과 혈당 조절 등 건강에 유익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최근 건강식품 원료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선 바닐라, 올리브 등 이색 열대식물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